

도요타 스타디움

도요타 스타디움은 도요타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 메타볼리즘(도시 활성화를 역설하는 건축 운동)의 창시자인 구로카와 기쇼(1934~2007)가 설계했습니다. 도쿄의 나카긴 캡슐 타워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등으로 유명하며,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. 이 스타디움은 도요타시의 탄생 50 주년을 기념해 2001 년에 개장했습니다.

44,38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스타디움은 럭비 전용 스타디움으로 일본 최대 규모입니다. 2019 년 럭비 월드컵 때는 경기가 열렸으며, 럭비 유니언 팀 '도요타 베르블리츠(Toyota Verblitz)'의 홈구장이기도 합니다. 또한, 동시에 축구팀 '나고야 그램퍼스'의 홈구장 중 하나입니다.

구로카와 씨의 스타일에 맞게 스타디움의 물결 모양 지붕은 약동감이 넘쳐 마치 자연물처럼 보입니다. 또, 마찬가지로 구로카와 씨가 설계해 1999 년에 개통한 도요타 대교의 골격 아치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지붕의 독특한 형상은 관중들에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지붕을 4 개의 커다란 마스트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, 다른 스타디움 같은 관중석의 시야를 가리는 커다란 기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. 4,000 석의 좌석에는 히터가 내장되어 있으며, 스타디움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는 이곳에서 경기를 한 다양한 팀들의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